

세계유산축전으로 인류 문명 · 자연의 위대함 알린다

▲ ‘국내유일’ 유네스코 보물 7개 보유 도시
전북 고창군을 처음 방문 하는 사람들은 고
속도로 IC를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를 알리는 멋진 조형물과 마주한다. 하단에는
5개의 세계유산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조형물
은 고창군의 중심인 군청 앞에도 세워져 오가
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이 인증샷을 찍는 포
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일
곱개를 보유한 국내유일의 도시다. 2000년 죽
림리 일대 고인돌 447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3년엔 판소리, 2014년 농악
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13년
에는 행정구역 전지역(671.52㎢)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지역이다.
이어 고창갯벌이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23년엔 고창 병바위 등 지역명
소 1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
으면서 유네스코의 주요 자연환경프로그램 3
개 모두를 석권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 무
장포고문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돼 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어려운 일
이지만, 이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고창군은 세계유산 일곱
개를 특화한 관광산업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
는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 ‘고대 인류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정
체’ 고인돌유적

“우리 동네에는 고인돌이 사방천지에 있었
어”, “봄이면 고인돌옆에 쭈크 나고, 가을이면
쭈크나던 자리에 버섯도 나왔지”, “잡은 고기를
구워 고인돌에 상을 차려 먹기도 했어”

국내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인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일대 할머니들의 옛 기억들이다.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은 현재의 인류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 한낱 돌무덤에 불과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사회에 세계에
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석문화의 중심에 고창
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단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고창군은 오랜 연구를 통해 고인돌유적을
200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했다.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거석문화 연구의 살아있는 장이 되고 있
다. 또한 고인돌 축조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채석장은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 모래 · 펄 · 혼합갯벌 한 곳에... 전세계적으
로 희귀한 지질 · 생태자원 ‘고창갯벌’

고창군 삼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
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
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짚어낸 촌로
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발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
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



세계유산도시 고창 조형물

죽림리 일대 고인돌 447기
판소리 · 농악 · 갯벌 · 병바위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고인돌유적, 거석문화 연구의 장
고창갯벌, 모래부터 펄까지
다양한 퇴적양상으로 ‘희귀’

세계유산축전 내일부터 21일간
고인돌 유적 · 갯벌 일원서 개척
문화 · 자연유산의 가치 전달
체험 · 학술 등 통해 특별함 만끽



고창 고인돌 유적지



고창 갯벌

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고창갯벌’은 지형 · 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
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
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
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셰니어(Chenier, 해안을 따
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
덕)가 형성된 지형 ·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식지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또 고창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창갯
벌을 찾는 철새 ‘빨래비갈매기’를 군의 상징
새로 지정하고, 최근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
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며 화제를 모았
다.

▲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
간... 세계유산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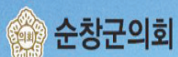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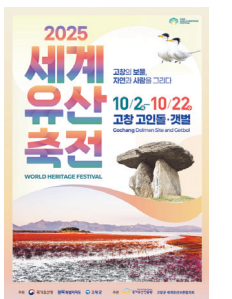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
군이 주최하고 국
가유산진흥원과
고창군 세계유산
보존협의회가 주
관하는 2025 세계
유산축전 고창 고
인돌 · 갯벌이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열린다.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세계자연유산인 갯벌
의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인돌 세움학교’와
‘고창갯벌 탐조여행’을 꼽을 수 있다. ‘고인돌
세움학교’는 학교 수업 형태의 현장 체험 프로
그램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수업 완료시에는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고창갯벌 탐조여행’은 전기차 탐방과 함께하
는 해설 탐조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 조류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진다.

이외에도 ‘숨쉬는 돌, 사계의 결 : 특별기획
전’, 준비된 의상을 입고 직접 고인돌 축조과
정을 체험해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트랙터를
타고 갯벌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
는 ‘갯벌속으로 GO! GO!’, 국제학술대회, 유적
투어, 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
해 세계유산의 특별한 가치를 만끽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 등의 인기로 한국의
문화와 자연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
다’며 “인류문명과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담은 고창
만의 세계유산축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
다. /고창=김영식 기자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군민의 행복과 순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손종석
의장

이성용
부의장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마화룡
경제산업위원장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